

오르간 축복 예식

천주교 대구대교구 범어 대성당
2018년

지 침

주교 예절서 18장

오르간 축복

인도

1034.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전에 놀라운 광채를 더하고, 마음을 하느님께 드높이 힘차게 들어 올릴 수 있다”(전례 헌장 120항).

오르간은 전례 거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르간은 노래를 이끌며 특별한 전례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의 노래를 뒷받침해준다. 오르간 단독 연주는 전례와 그 선포를 심화시켜주며 특히 전례력의 특별한 날들과 교회와 함께 이를 거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단계에서는 그에 맞는 장중함을 더 높인다. 오르간은 축복(축복 기도, 성수 뿌림, 분향)으로 전례와 종교적인 연주를 위하여 성대하게 결정된다.

오르간 축복 때 사람은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수많은 파이프의 화음은 다양성 안에서의 교회의 일치를 표현한다.

라틴 교회 안에서 전례 안에서 오르간이 연주되기 전에 오르간을 축복하는 고귀한 풍습은 보존되어야 한다.

예식은 통상적으로 지역 교회 주교, 본당 신부가 거행한다.

지역상어나 여건상 기회에 상응하여 오르간은 보통의 말씀 전례 안에서 축복된다. 축복식은 말씀의 선포와 강론 후에 거행된다. 그때까지 오르간은 침묵한다.

1035. 오르간 축복은 선호하는 날에 거행할 수 있다. 단 파스카 성삼일, 그 외 성주간 평일들, 재의 수요일과 모든 성인의 날은 제외된다. 이 예식의 축제적인 특성은 또한 대림시기와 사순 시기를 피하기를 권한다. 가능한 한 많은 신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우선하여 선택한다. 주일 저녁이 가장 좋다.

1036. 축복식을 위해 준비할 것들:

- a) 축복예식서
- b) 독서집
- c) 성가집
- d) 성수와 성수 그릇 및 성수채
- e) 행렬용 십자가와 촛대

f) 향로와 향이 담긴 향로 그릇

예식을 위해 흰옷을 준비한다. 경우에 따라 축제 전례 의복을 고른다.

주교: 장백의, 영대, 가슴 십자가, 캡파(어깨 망토), 모관과 목장;

부제: 장백의, 영대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달마티카;

전례적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 장백의 또는 다른 허락된 전례복.

예식 기술

1037. 공동체가 모이면 모관을 쓰고 목장을 든 주교는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촛불을 밝힌 두 사람의 초복사가 십자가를 든 복사를 앞세우고 행렬한다. 뒤따라 특별한 전례적 직무를 수행하는 봉사자들, 부제, 사제 마지막으로 주교가 나아간다. 행렬 동안에 신자들은 적당한 성가를 부른다. 그렇더라도 축복을 앞둔 오르간은 연주되지 않고 다른 악기 음악이 수반된다.

1038. 성가나 악기 음악이 끝나면 주교는 목장과 모관을 벗고 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말로 인사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어 주교는 간단히 이 예식의 의미에 대해서 공동체에게 말한다. 인도 부분에서 공동체의 대표 또는 오르간 제작사 대표가 주교와 공동체에게 완성된 작품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다. 인도 부분이 끝나면 자비송을 노래할 수 있다. 시작 예식은 아래 기도로 마친다. “기도합시다. 주님이신 하느님, 이 기쁜 시간에 저희의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미 안에 당신 아들의 뽑힌 이들이 기뻐하며 부르는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나이다. 성자는 세세에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독어판 축복 기도서. 32. 오르간 축복, 166쪽).

1039 이어서 주교는 모관과 목장을 받고 앉는다. 말씀의 전례가 뒤따른다. 독서 봉사가 축복예식서가 제시하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독서를 읽는다. 화답송으로 시편 117(116)을 노래하거나 다른 적당한 성가를 부른다.

1040. 하느님 말씀의 선포가 끝난 후 주교는 강론을 한다. 주교는 봉독된 성경 말씀에서 전례 안에서 공동체의 삶에서 오르간의 의미에 대해서 뿐 아니라 노래와 음악의 의미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강론한다.

1041. 가능하다면 이제 주교는 오르간 쪽으로 간다. 이때 시편 150편을 노래하거나 다른 찬가를 부른다. 오르간 곁에서 또는 주교좌에서 목장을 건네고 모관을 벗는다. 찬미 노래가 끝나면 주교는 오르간 쪽으로 가서 축복 기도의 인도문을 노래하거나 말한 후 축복 기도를 바친다. 기도를 마친 후 주교는 오르간에 성수를 뿌리고 분향한다. 그런 다음 주교는 모관과 목장을 받고 주교좌로 돌아간다. 주교좌에 이르면 목

장을 건네주고 앉는다.

1042. 이어 오르간의 첫 연주가 뒤따른다. 연주자는 예식에 알맞은 성대한 오르간 작품 한곡을 선정하여 연주한다.

1043. 첫 연주가 끝나면 주교는 모관을 벗고 축복예식서가 제시하는 청원 기도를 이끈다. 청원 기도는 다함께 노래로 하거나 말로 주님의 기도와 다음의 마침 기도로 마무리한다. “좋은 것 모두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느님, 저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자비로우신 일을 알게 하시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044. 찬미가 떼 데움(Te Deum)를 노래하거나 다른 감사 노래를 부른다.

1045. 그런 다음 주교는 모관과 목장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동체에 강복한다. 부제는 “평화로이 가십시오” (“주님을 찬미합니다”)라는 말로 신자들을 보낸다. 공동체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답한다. 오르간 축복은 오르간 연주로서 마친다. 축복식 이후 공동체의 오르간이 소개되는 연주회가 이어질 수 있다.

1046. 미사 중에 오르간 축복식이 거행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

1047. 저녁 기도 중 오르간 축복식이 거행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
(독일어판 주교 예절서)

축복 예식

주임사제는 장백의와 영대, 카파를 입는다. 축복 예식은 프란치스코 성당 사제석에서 시작한다.

입당 행렬은 십자가, 초복사(2), 향복사(2), 부제복사(2), 사제단 순으로 한다.

입당성가는 오르간이 아닌, 다른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한다.

※ 찬미 예수님 ! 오늘은 우리 주교좌 범어 본당 프란치스코 성당의 오르간을 축복하는 기쁜 날입니다. 은혜로운 오르간 축복 예식에 오르간의 아름다운 음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 대전에 오르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이제 전례 봉사자들을 앞세우고 사제단이 입당하십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입당성가는 00번입니다.

시작 예식

주교가 목장과 모관을 내린 다음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 멘

주례 사제는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며 아래와 같이 말한다.

‡ 성인들의 끝없는 찬미를 받으시는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이어서 사제는 아래의 말로 참석자들이 축복식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한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전례 거행을 더욱 아름답고 장엄하게 하는
새 오르간을 축복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전례 거행에 사용되는 성 음악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며,
특히 오르간은 우리가 하느님께 불러 드려야 할
새 노래의 탁월한 표지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정녕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음을 모아 이 예식에 참여합시다.

오르간 열쇠 전달 및 수락

주교의 권고 후, 오르간 열쇠 전달 및 수락이 이어진다.

※ 지난 2년간 오르간 제작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리의 아름다움에 의지하여 나무를 깎아내고, 쇠를 녹여 오르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프랑스 오르간 제작사의 사장인 미셸 씨가 주님을 찬미하는 도구가 될 오르간의 열쇠를 주임 사제에게 건네고 본당 주임사제는 프란치스코 성당의 오르가니스트 김 주현 요한 씨에게 건네줍니다.

오르간 설치 관계자는 열쇠를 본당 주임 신부에게 건넨다.

주임 신부는 관계자들과 인사한 후 열쇠를 받아 오르간 연주자에게 열쇠를 건넨다.

연주자가 오르간을 작동하면 모든 관계자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주임 신부는 아래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합니다.

침묵하며 기도한 다음, 사제는 팔을 펴 들고 아래의 기도를 바친다.

주 하느님, 이 기쁜 시간에 저희의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미 안에
당신 아들의 뽑힌 이들이 기뻐하며 부르는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나이다.
성자께서는 세세에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 멘

기도를 바친 후, 사제는 좌석에 앉는다.

말씀 전례

이어서 독서자는 아래의 성경을 봉독한다.

독 서

독서는 콜로 3, 12-17을 봉독한다.

봉독이 끝나면 독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회중은 응답한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독서에 이어 화답송을 노래한다.

화답송은 아래의 후렴을 시편 47(46),2-3.7-8(◎ 6 참조)을 함께 노래한다.

◎ 환호 소리와 나팔 소리로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복음 환호송

향복사와 초복사가 주례자에게 향을 받고 독서대로 향하면, 복음을 봉독할 부제는 주례자에게 축복을 받는다(시편 98[97], 4).

◎ 알렐루야.

○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노래 불러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1,39-47

그 다음에 사제나 부제는 독서대로 가서 말한다.

+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 ()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때 사제나 부제는 복음서와 이마, 입술, 가슴에 십자표를 긋는다.>

◎ 주님, 영광 받으소서.

<봉독이 끝나면, 사제나 부제는 말한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어서 사제나 부제는 복음서에 절하면서 속으로 말한다.>

+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 죄를 씻어주소서.

강 론

복음 봉독 후에 주례자는 강론으로 오르간에 관해 설명한다.

강론 후 축복기도가 이어진다.

주례자는 오르간 쪽으로 간다. 이때 시편 150편을 노래하거나 다른 찬가를 부른다.

찬미 노래가 끝나면 주례자는 축복 기도의 인도문을 말한 후 축복 기도를 바친다.

기도를 마친 후 주례자는 오르간에 성수를 뿌리고 분향한다.

*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 주례 사제는 오르간 축복 기도를 바치십니다.

축복 기도

주례자는 먼저 아래의 말로 권고한다.

‡ 하나이고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는

이제 한마음으로 소리를 모아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모두 잠깐 침묵하며 기도한 다음, 주례자는 팔을 펴 들고 아래의 축복 기도를 바친다.

†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새롭고 아름다우신 주 하느님,
하느님의 지혜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이 꾸며지며
항상 하느님 뜻을 따르는 천사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우주의 별들도 궤도를 돌며 노래하오니
구원된 모든 이가 소리 맞추어 거룩하시도다 외치며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기꺼이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이 집에 모인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도
온 우주의 합창 소리에 목소리를 맞추려 하나이다.
이 찬미가 하느님 어전에 더욱 합당하게 이르도록
오르간을 하느님께 바치며 강복을 청하오니
이 오르간 소리에 맞추어
저희의 찬미 노래와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 멘

다음으로 주례 사제는 연주대와 오르간에 성수를 뿌린다.

이후 사제는 향로에 향을 넣고 새 오르간에 분향한다. 분향 순서는 오르간 연주대,
오르간의 좌측, 중앙, 우측이다. 분향 후 사제는 제대로 향한다.

제대에 이르면 “깨어나라, 오르간아” 대화 예식을 시작한다.

(대주교님께서 분향 후 제대에 서시면)

✱ 이제 주례 사제는 새롭게 축복된 오르간을 깨우십니다. 주례 사제의 부름에 오르간
은 아름다운 선율로 응답합니다.

“깨어나라, 오르간아” 대화

연주대에 분향이 끝나면, 연주자는 연주대에 앉는다.

주례 사제의 부름에 오르간은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 깨어나라, 오르간아, 거룩한 악기여,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느님께 찬미 소리 올려라.

오르간으로 응답하며 연주한다.

† 오르간아, 거룩한 악기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려라.

오르간으로 응답하며 연주한다.

† 오르간아, 거룩한 악기여,
하느님의 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께 노래하여라.

오르간으로 응답하며 연주한다.

† 오르간아, 거룩한 악기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께 우리 노래와 간청을 드높여라.

오르간으로 응답하며 연주한다.

† 오르간아, 거룩한 악기여,
신자들의 모임을 그리스도의 성찬례에로 인도하여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위로를 북돋아 주어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떠받쳐주어라.

오르간으로 응답하며 연주한다.

오르간의 마지막 응답 후, 주례 사제는 청원기도를 바친다.

(오르간과의 대화가 끝나면)

* 이제 우리의 바람을 전하는 청원 기도 바치겠습니다.

각 청원 기도 끝에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다함께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기도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의 선물을 내려 주셨으니,
우리는 기뻐하면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온 마음과 입으로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감사를 드립니다.

◎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과 땅의 임금이시고 모든 완전함의 원천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끊임없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의 영광이 크시오니 찬미하나이다. ◎

성부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세상의 죄를 없애고 구원하시려고 형제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사람이 되시어 인류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사랑이 크시오니 영광을 드리나이다. ◎

사람들 마음속에 머무르시며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교회 안에도 신비로이 현존하시오니 찬양하나이다. ◎

만물의 시작이요 마침이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은혜는 헤아릴 길이 없으니,

하늘과 땅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저희는 하느님을 흠송하나이다. ◎

청원 기도는 다함께 노래로 하거나 말로 주님의 기도와 마침 기도로 마무리한다.

†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마침 기도

† 좋은 것 모두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느님,

저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자비로우신 일을 알게 하시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 멘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오늘 축복한 새 오르간으로 본당 오르가니스트들의 짧은 연주가 있겠습니다.

* 모두 일서 나십시오. 주례 사제의 장엄 강복이 있겠습니다.

마침 예식

사제는 신자들을 향하여 팔을 펴들고, 아래와 같이 강복한다.

‡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 온갖 찬미를 받아 마땅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저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제 저희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찬미하오니

마침내 하늘 나라에서 언제나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 아 멘

‡ 전능하신 천주 ✕ 성부와 ✕ 성자와 ✕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 아 멘

예식은 알맞은 노래로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르간이 전주를 연주하고 모든 신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노래한다. 신자들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힘차게 노래하는 가운데 사제는 퇴장한다.

* 오르간 축복식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나홀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오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